

연구소 소식

2019년도 시무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1월 2일(수) 오전 10시 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백선희 소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2019년도 목표로 'SHARE KICCE'를 발표하고 '공유와 소통'의 실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연구소 임직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2018년 'RESET KICCE'의 혁신에 이은 'SHARE 공유' 전략으로, 백 소장은 '공유-소통-시스템 행정'을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행복한 일터,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1월 18일(금) 오후 2시부터 4층 대회의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및 정책 제도화를 위한 집중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수탁연구인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모델 다양화 및 현장도입 방안」 연구의 정책 제언을 위해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연구책임자인 박창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인 김근진, 이재희 부연구위원, 조혜주 전문연구원을 비롯하여,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한국해양대학교 김용일 교수, 전국사립유치원 위성순 대표, 한양제일유치원 이인옥 원장,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김성섭 정책위원장, 한 살림 김영연 대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장현국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 임정은 활동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권지영 과장, 안성미 사무관과 학계 및 현장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박창현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정책의 쟁점과 과제: 공영형 유치



원과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고, 이후 토론에서는 사립유치원 신뢰회복 방안, 국·공립 유치원 확충,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 등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었다.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 육아정책연구소 세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2월 12일(화)부터 13일(수) 양일간 전라북도 전주시(그랜드 힐스톤 호텔)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 II」에 참여하였다. 본 회의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2개 학회, 연구기관 등 80개 유관기관과 공동주최한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13일(수) 오전 11시



20분부터 호텔 2층 제4회의실에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육아정책연구소 세션’을 가졌다. 본 세션은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하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인구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공동참여로 마련하였다. 백선희 소장의 기조강연 ‘초저출산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과 과제’를 비롯하여 한정열 교수(단국대)가 ‘건강한 출생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정책’을, 최일선 교수(경인교대)가 ‘미래사회의 주역, 영유아 돌봄·교육 통합 지원정책’,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환경 조성 방안: 사각지대 해소 중심으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에 이어 강민정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나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선 교수(순천향대), 김영화 교수(경북대)의 토론이 이어졌다.

육아정책연구소-하나금융그룹 업무협약식 체결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3월 7일(목) 서울 종로 미래에셋센터원 빌딩 36층에서 하나금융그룹과 새로운 육아인프라 모델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백선희 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위원회 위원들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최은영 기획조정본부장, 문무경 국제연

구실장, 강은진 성과공유팀장, 「아동 및 육아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도남희 국제통일연구팀장이 참석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8년 10월부터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 협약식은 그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소와 하나금융그룹은 이번 협약에 따라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 구현을 위한 상호협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에 대한 상호협력, 하나금융그룹 보육지원 사회공헌사업 등에 대한 자문들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9년도 기본/일반과제 착수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2일(화)부터 13일(수) 양일간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기본/일반과제 25개에 대한 착수보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백선희 소장을 비롯하여 전 연구직이 참석한 가운데 각 연구과제의 전반적인 연구계획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미옥 교수(서울여대), 최영 교수(중앙대), 우석진 교수(명지대), 이삼식 교수(한양대) 등 다양한 학계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 및 자문을 진행하였다.



2019년도 제1차 브라운백 정책 미팅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14일(목) 오전 11시 3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도 제1차 KICCE 브라운백 정책 미팅'을 개최하였다. 브라운백 정책 미팅은 정책 이슈 및 현안의 공유·토론, 연구결과 및 연구방법 공유 등 연구직 역량제고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백선희 소장과 유해미 미래전략추진단장을 비롯한 연구직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의 이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이라는 주제 하에 이루어진 본 미팅에서 백선희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과 보건복지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 정책을, 유해미 단장은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육아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정부의 저출산 및 아동 정책기조에 대한 분석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도 상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수) 오전 11시부터 광화문 소재 크리스탈 제이드에서 2019년도 상반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박현정 기자(한겨레), 박희정 기자(월간유아), 김경림 기자(키즈맘) 등 주요 일간지 사회부 소속 기자 및 전문기 기자를 초청하여 육아정책 현안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 및 2019년도 수행 연구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내에서는 백선희 소장을 비롯하여 유해미 연구위원, 최효미 부연구위원, 이정림 연구위원, 양미선 연구위원, 김은영 연구위원, 도남희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어 각 과제의 세부내용과 육아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19년도 제1차 KAL 현장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3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굿네이버스 회관 멀티미디어실에서 2019년도 제1차 KAL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내 아동학대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실시한 이번 간담회에는 백선희 소장을 비롯하여 원내 김은영 연구위원, 양미선 연구위원, 굿네이버스 양진옥 회장, 고완석 팀장,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윤석현 관장 등 서울·경기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들 참석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요구를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